

『韓國漢字字典』 수록자의 유형과 편찬과정에서의 주요 검토사항*

정태운(제1저자)** · 김우정(연결저자)***

국문초록

이 글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발간한 『韓國漢字字典』에 반영된 ‘한국한자’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밝히고, 수록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誤讀과 誤字 사례 및 기존에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국음 추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전 편찬과정에서 맞닥뜨린 주요 검토사항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고유한자’와 ‘國字’, 중국 중심의 전파론의 혐의를 지닌 ‘漢字系文字’ 대신 ‘한국한자’라는 용어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韓國漢字字典』에 수록된 3,724자를 유형별로 소개하였는 바, 字形, 字音, 字義 모두 한국 고유의 특징이 있는 한자가 2,010자로 가장 많으며, 韓國異體字 1,433자, 國義字 258자, 國音字 42자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誤讀의 경우, 원문의 자형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 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자형으로 오독한 사례,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오인한 사례 등이 있었다. 誤字의 경우, 초서로 쓰인 원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字義만 알려진 ‘佛’와 ‘齧’, ‘뫼’(화)로 알려진 ‘츰’(대구), ‘憲’를 聲部로 하는 형성자로서 인명에 홀로 쓰인 한자의 자음을 추정하여 밝혔다.

한국한자의 존재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은 國學은 물론 동아시아 인문고전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한국한자사전』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자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언어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 여겨진다.

[주제어] 한자, 한국한자, 字典, 字形, 字義, 字音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誤字의 판별 |
| II. 한국한자의 개념과 주요 유형 | V. 字音의 추정 |
| III. 字形의 誤讀 | VI. 나가는 말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2086984)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편찬원 / jty1206@hanmail.net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rtoran@dankook.ac.kr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한국한자사전』¹⁾에 반영된 ‘한국한자’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밝히고, 수록 ‘후보자’²⁾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誤讀과 誤字 사례 및 기준에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국음 추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전 편찬과정에서 맞닥뜨린 주요 검토사항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한자사전』의 일러두기나 본문을 통해 밝히지 못했지만 학술적으로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자학 방면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도 담고 있다.

『한국한자사전』은 편찬 의도와 성격, 표제와 내용, 간행 주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1996년 출판된 『한국한자어사전』의 후속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휘에 초점을 맞춘 『한국한자어사전』과는 달리 낱말의 한자에 초점을 맞춘 ‘사전’으로, 출현 빈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인 한자 외에 이미 존재하는 한자라 할지라도 자음이나 자의 면에서 우리만의 특수한 쓰임을 지닌 한자까지 수집·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또한 『晝永編』으로부터 근래 고문서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이체자에 이르기까지 산발적으로 소개되어 온 한국한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음·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자라 할지라도 제외하지 않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록하되, 추정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함께 밝힌 점 역시 기존의 사전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한자사전』은 국학을 포함한 동아시아 인문고전의 연구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한자 정보를 전면적·체계적으로 다룬 사전 한 권 갖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한 이후 전통적인 자학과 성운학 분야 외에도 중세 국어학, 한문학, 역사학, 문헌학 등 유관 분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한국한자를 다룬 결과, 용어나 개념의 혼선은 물론이고 상호 간에 배치되는 사례라든지 크고 작은 오류를 반복해서 답습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후보자 수집에 앞서 한국한자와 관련한 여러 학문 단위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에 수록할 한자를 선택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내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록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3,724자만이 본 사전에 수록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소개할 원전을 오독한 사례, 오자가 만들어진 이유 등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결과라 할 것이며, 몇 가지 한자의 국음 문제를 거론한 부분은 유관 학문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韓國漢字字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23.

2) 『한국한자사전』 편찬을 기획할 때 1차 검토 대상으로 삼은 후보자는 선행 연구, 남북한 단독 제안 유니코드 등록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 등 3가지 방면에서 수집하였으며, 그 수량은 순서대로 2,409자, 2,811자, 9,827자이며, 중복된 한자를 제외한 자수는 총 11,274자다.

II. 한국한자의 개념과 주요 유형

1. 한국한자의 개념

鄭東愈(1744~1808)가 『주영편』에서 조선에서만 쓰인 한자 42자를 ‘자서에 없는 한자(字書所無之字)’로 소개한 이래 한국한자는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어왔다. 우선 李圭景(1788~?)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지명, 인명, 이두로 쓰인 한자 98자를 소개하며 이를 ‘土俗字’라 하였는데, 이후 俗字라는 이름으로 『字典釋要』(池錫永 편)와 『新字典』(崔南善 편), 그리고 『俗字攷』(鮎貝房之進 편)로 이어졌다. 이들은 대체로 편찬자가 인지하고 있는 소량의 한자를 부기·부록하거나 별책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세기 초까지 한국한자는 ‘자전의 전통에서 벗어난 한자’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한국)고유한자’(김종훈; 남풍현; 하영삼; 신상현; 이건식), 韓國漢字(李柄熙; 이충구; 박성중), 朝鮮式 漢字(최동언), 漢字系文字(허철) 등 다양한 명칭이 제안된 바 있으며, 국외에서는 ‘漢字型文字’(周有光), ‘漢字系文字’(王鋒), ‘조선국자’(림성호), ‘漢字關連文字’(吉池孝一), ‘韓國特用漢字’(대만 교육부), ‘韓國特有漢字’(리득춘)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³⁾

이 가운데 중국 중심의 전파론으로 귀착할 우려가 큰 ‘漢字型文字’, ‘漢字系文字’, ‘漢字關連文字’를 제외하면, ‘(한국)고유한자’와 ‘한국한자’가 비교적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한자사전』의 편찬자들은 숙고 끝에 ‘(한국)고유한자’보다는 ‘한국한자’라고 하는 것이 명칭으로 인한 오해와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⁴⁾

‘(한국)고유한자’는 우리나라에서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 조자하거나 기존 한자를 차용한 한자를 가리킨다.⁵⁾ 그런데 보통 ‘고유한자’라고 하면 ‘고유’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으로 생각하지 ‘고유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앞에 ‘한국’이 있다면 국외의 연구자들은 이를 ‘한국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례로 ‘國’을 ‘混’의 韓國異構字로 잠정 판정한 후 중국 측 전문가⁶⁾에게 ‘한국고유한자사전’을 편찬한다고 하면서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혹여 모를 오해를 피하고자 ‘고유’의 함의를 별도로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연구자는 『新金文編』에 의하면 중국 周와 춘추시기의 金文에 인명으로 쓰인 경우가 있고 『中華字海』에서는 ‘混’의 뜻으로 쓰

3) 논문은 참고문헌에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며, 국외 연구자가 사용한 명칭은 해당 논고에 쓰인 표기법 그대로 제시한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허철, 「학술용어 관점에서 ‘한국고유한자’ 명칭과 분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자계문자’를 제안하며」, 『東洋學』 75, 2019 참조.

4) 한편 ‘고유한자’라는 명칭 외에 ‘자형 면에서 우리만의 특징을 지닌 한자’라는 의미로 ‘國字’라는 용어를 함께 쓰기도 하는데 (김종훈; 武鵬宇; 이건식), 이는 엄밀히 말해 國音字나 國義字에 대응되는 國造字를 축약한 말이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상위 개념인 ‘고유한자’(본고에서의 ‘한국한자’)와 동일한 의미로 오인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거나 공인된 문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5)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훈, 「韓國 固有漢字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참조.

6) 이체자 분야의 전문가인 山东大学 邵文利 교수로, 본서 편찬 과정에서 중국 측에 동일 자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 방언자라고 했으니 한국의 이구자인지는 시대의 선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편집진은 이 글자가 금문에 쓰인 인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중화자해』를 확인한 결과 비슷한 뜻은 있지만 용례가 없어 시대의 선후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이구자로 수록하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피하려면 가급적 '고유'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李德懋의 '踏'에 대한 아래의 언급도 한자의 내력을 판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

“畚字，我國俗字，萬不得已用於公家俗間文書，而我國人不講六書，雖善書者，如踏字，不作足旁畚而作踏，令人心內不安。偶看丹鉛錄刊本，有一踏字，作足旁畚，雖是坊間傭書人誤寫者，而於中原書初見，故記之。”⁷⁾

『한국한자사전』에서는 '踏'을 전통적인 자서나 운서 등에 보이지 않아 '踏'의 韓國異寫字로 수록하였는데, 18세기에 이덕무는 이 글자를 失傳된 중국 명나라 楊慎의 저서 『丹鉛錄』 간행본에서 보았다고 하였다. 만약 이렇게 쓰인 『丹鉛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면 한·중 간에 이 글자가 쓰인 시대적 순서와 그 음과 뜻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실제로 후보자를 검토하는 과정 중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한자 중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고유한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자를 다수 발견하였다. 이에 편집진은 논의 끝에 이들 한자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점을 중시하여 수록하기로 하는 한편 사전의 명칭도 '한국한자사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⁸⁾ 사례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한자사전』에는 '坑', '沘', '枙'과 같이 '형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인명용 한자 1,506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단지 인명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한자와 다를 바 없는 한자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온 이후 상류 계급에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유어를 버리고 한자로 인명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중국식 작명법으로, '물오르다'를 나타내고자 '沘'를 조자한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유한자로 볼 수 없다.⁹⁾ 요컨대 우리나라에는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한 국자도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사용된 방식으로 조자된 국자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한자사전』에는 구조적인 차이를 가진 한국이구자와 필사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한국이사를 합해 모두 1,433자의 한국이체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고유한자라고 호명하기에 부적절하다.

7) 李德懋, 『靑莊館全書』, 『寒竹堂涉筆』, 「畚」.

8) 본 사전의 명칭을 '한국한자'로 정한 것은 동양학연구소(현 동양학연구원)에서 1996년 편찬한 『한국한자어사전』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한자어사전』은 일러두기에서 『한한대사전』을 출간하기에 앞서, 우리 문헌에서 채록한 한자 및 한자어를 모아 주석하여 한국한자어사전이라 이름을 붙여서 간행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라고 하였으니, 굳이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한 한자나 한자어만을 수록한 것이 아니다. 『한국한자사전』은 『한국한자어사전』과 지향하는 바가 같으므로, 『한국한자어사전』과 짝을 이루어 『한국한자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9) 김종훈(앞의 책, 1983, 17쪽)은 枙, 鑷, 沘, (木+沘) 등을 형성으로 조자된 국자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鑷을 '뺨을 설'로 주석한 것은 鑷을 풀이한 것뿐이어서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木+沘)은 宋齊民의 아버지가 宋柁이므로 柁의 오자 또는 이사자로 볼 수 있을 뿐 고유한자는 아니다.

한국이구자는 ‘擅’의 ‘亼’을 음이 같은 ‘丹’으로 대체한 ‘拏’, ‘粲’에 뜻을 나타내는 ‘口’를 추가한 ‘嚙’, 문장의 앞 글자 ‘𪛗’에 동화되어 ‘酌’의 ‘酉’를 ‘甚’으로 대체한 酌과 같이 동일한 음이나 뜻을 지닌 구성 성분이 추가되거나 대체되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생겨났다. 한국이사자는 단순한 필사의 차이 외에도 ‘幼’의 좌우 구조를 상하 구조로 바꾼 ‘尙’, ‘嚴’의 ‘廩’을 생략한 ‘𪛗’, ‘窳’의 ‘宀’을 자형이 유사한 ‘宀’으로 대체한 ‘窳’ 등에서와 같이 구성 성분의 위치 변화와 생략, 유사 구성 성분의 혼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출현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자형상의 차이를 보일 뿐,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 조자하거나 기존 한자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한국한자의 유형

『한국한자사전』에는 國(造)字 2,010자, 國音字 42자, 國義字 258자, 韓國異體字 1,433자, 총 3,724자가 수록되어 있다(중복 분류 포함). 이들 유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조)자는 字形, 字音, 字義 모두 한국 고유의 특징이 있는 한자다. 다음은 이들을 조자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① 상형자 1자: 尗(마) 차자로 쓰인 글자. 우리말의 ‘마’를 표기. 마치의 모양을 형상화함.
- ② 회의자 2자: 馮(횡) 말이 씩하고 달리다 / 闕(괘) 문바람
- ③ 형성자 1,596자: 형성자 중 94.5%가 인명용 한자 / 魴(정) 물고기 이름 / 楡(명) 흙통 / 鏞(한) 차자로 쓰인 글자. 우리말의 물건을 쓸거나 깎는 데 쓰는 연장인 ‘환(한)’을 표기 / 獾(돈) 담비
- ④ 형성 겸 회의자 19자: 鱈(표) 표범 같은 물고기 / 蠟(소) 흰색인 벌레. 배좁벌레조개
- ⑤ 한자 + 한자 9자: 畚(답) 수전(水田). 논 / 畷(전) 백전(白田). 밭
- ⑥ 한자(음차) + 한자(음차) 20자(차자 표기에 사용): 糞·糞·糞(노미) 우리말의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 ‘노미’, ‘놈’을 표기 / 孳(자근) 우리말의 ‘작은(자근)’을 표기
- ⑦ 한자(음차) + 한자(한글 종성 혹은 초성 표기) 215자(차자 표기에 사용): 糞(곱) 우리말의 ‘곱’을 표기. ‘糞丹’은 인명. 곱단. / 𪛗(붓) 우리말의 ‘붓’이나 ‘복’을 표기. ‘𪛗朴’은 ‘불박이(붓박기)’ / 𪛗(똥) 우리말의 ‘똥’을 표기. ‘介𪛗’은 ‘개똥(개똥)’
- ⑧ 한자(의차) + 한자(음차) 4자(차자 표기에 사용): 𪛗(자근) 우리말의 ‘작은(자근)’을 표기. ‘𪛗孫’은 ‘작은 손(자근손)’
- ⑨ 한자(음차) + 한글 자음(한글 종성 표기) 22자(차자 표기에 사용): 𪛗(각)은 우리말의 ‘각’을 표기. 𪛗耳는 가귀(각이) / 𪛗(둥)은 우리말의 ‘둥’을 표기. 𪛗屈은 인명. 둥굴쇠 / 𪛗(검)은 우리말의 ‘검’을 표기. 𪛗之는 인명. 검지
- ⑩ 한자(의차) + 한글 자음(한글 종성 표기) 3자(차자 표기에 사용): 𪛗(독)은 우리말의 ‘독’을 표기. ‘𪛗

金'은 '돌쇠(독쇠)'

⑩ 국자의 이체자 89자: 糠(수)는 稂의 이구자 / 丁·秦(마)는 차자 표기용 한자인 ㄱ의 이사자

둘째, 국음자는 자형은 외국에서 탄생한 것을 빌어다 쓰되 자음과 자의에서 모두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한자다. 국음자에는 사고나 탈을 뜻하는 '頃(탈)',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들어간 육지를 뜻하는 '串(곶), 짐이나 짐의 단위를 뜻하는 '卜' 등이 있다.

셋째, 국의자는 자형, 자음은 외국에서 탄생한 것을 빌어다 쓰되 자의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한자이다. 국의자에는 토지 면적의 단위로 1백 짐을 뜻하는 '結', 집터 등을 뜻하는 '代', 벼랑을 뜻하는 '遷', 여자의 남자 형제인 오라비를 뜻하는 '舅', 토지 면적의 단위로 5頃을 뜻하는 '字', 관아에서 내주는 영수증을 뜻하는 '尺', 언덕을 뜻하는 '原'이나 '德' 등이 있다.

넷째, 한국이체자는 韓國異構字와 韓國異寫字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이구자는 외국에서 탄생한 한자와 자음, 자의는 같되 자형 구조상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한자이다.¹⁰⁾ 한국이구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음이 같거나 유사한 구성 성분으로 대체한 한자: 拊(단) '攢'의 '扌'를 음이 같은 '丹'으로 대체 / 狝(수) '獸'의 '豸'를 음이 같은 '水'로 대체 / 姪(사) '姪'의 '以'를 '姪'와 음이 같은 '四'로 대체
- ② 뜻이 같거나 통하는 혹은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구성 성분으로 대체한 한자: 靴(화) '靴'의 '革'을 뜻이 같은 '韋'로 대체 / 幘(오) '襖'의 '衤'를 뜻이 통하는 '巾'으로 대체 / 稻(업) '稻'의 '禾'를 뜻이 통하는 '米'로 대체 / 滅(멸) '滅'의 '火'를 뜻을 나타내는 '火'로 대체 / 嬖(문) '們'의 '亻'를 뜻을 나타내는 '女'로 대체
- ③ 음과 뜻이 같은 자, 통용하는 자 등으로 대체한 한자: 儻(선) '儻'의 '甹'를 음과 뜻이 같은 '遷'으로 대체 / 鏹(루) '鏹'의 '婁'를 음과 뜻이 같은 '屮'로 대체 / 闕(규) '闕'의 '規'를 통용하는 '窺'로 대체 / 忤(변) '忤'의 '忬'을 통용하는 '弁'으로 대체 / 愴(창) '愴'의 '倉'을 통용하는 '蒼'으로 대체
- ④ 문장의 앞뒤 글자와 같은 구성 성분으로 대체한 한자: 𡇗(산) 문장의 앞뒤 글자에 동화되어 '姍'의 '女'를 '口'로 대체 / 媚(활) 문장의 앞뒤 글자에 동화되어 '狷'의 '犭'를 '女'로 대체 / 𡇗(작) 문장의 앞뒤 글자에 동화되어 '𡇗'의 '𡇗'를 '𡇗'으로 대체
- ⑤ 뜻이 같거나 통하는 혹은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구성 성분을 추가한 한자: 𡇗(찬) '웃다'라는 뜻을 가진 '𡇗'에 뜻을 나타내는 '口'를 추가 / 𡇗(단) '정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丹'에 뜻을 나타내는 '𡇗'을

10) 이체자를 이구자와 이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王寧, 『漢字學概要』,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참조. 한국 이체자의 유형 분류는 조성덕, 「한국 문집 소재 이체자 연구: 고려말에서 조선후기까지의 문집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참조.

추가 / 櫛(감) ‘龠’에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는 ‘木’을 추가 / 獋(홍) ‘囟(凶)’에 ‘개’라는 뜻을 나타내는 ‘犭’를 추가

- ⑥ 문장의 앞뒤 글자와 같은 구성 성분을 추가한 한자: 峙(치) 문장의 앞뒤 글자에 동화되어 ‘峙’에 ‘亻’를 추가. ‘儲峙’는 ‘저장하다’는 뜻 / 嘸(범) 문장의 앞뒤 글자에 동화되어 ‘嘸’에 ‘口’를 추가. ‘嘸嘸’는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 ⑦ 음과 뜻이 같거나 통하는 두 글자를 조합한 한자: 𪔵(빈) ‘𪔵’과 그 이체자인 ‘𪔵’을 조합 / 災(재)는 ‘災’와 그 이체자인 ‘災’를 조합

한국이사자는 외국에서 탄생한 한자와 자음, 자의는 같되 자형상 필사의 방법 등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한자이다. 한국이사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순한 필사 방법의 차이 외에도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구성 성분의 위치 변화: 幼(유) 幼의 좌우 구조를 상하 구조로 바꿈 / 屹(힐) 屹의 좌우 구조를 상하 구조로 바꿈 / 岬(안) 岬(岸)의 상하 구조를 좌우 구조로 바꿈
- ② 구성 성분의 생략: 𪔵(엄) ‘嚴’의 ‘厶’을 생략 / 𪔵(상) ‘嘗’의 ‘艹’을 생략
- ③ 유사 구성 성분의 혼용: 窸(실) ‘窸’의 ‘宀’을 자형이 유사한 ‘宀’으로 대체 / 痴(치) ‘痴’의 ‘疒’을 자형이 유사한 ‘疒’으로 대체

Ⅲ. 字形의 誤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원전을 확인한 후보자 9,000여 자 중 자형 면에서 원문의 자형을 오독한 사례를 400자 이상 확인할 수 있었다. 신출한자 판단 과정이나 폰트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원문 속 자형 이미지가 불분명하거나 유사한 자형과 혼동하여 오독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인다.¹¹⁾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1) 검토 대상 한자는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에 실린 자료들이며, 분석을 위해 참고한 기타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행초서: 書法字典(<http://www.shufazidian.com/>)

한국의 행초서: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중국의 이체자: 臺灣 教育部 異體字字典(<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home.do>)

한국의 이체자: 한국고전종합DB 이체자정보(<https://db.itkc.or.kr/dch/>)

1. 원문 자형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오독한 사례






역통 폰트 및 코드	疑 KC04080	婁 KC07788	淳 KC02061	僵 KC00189
원전 이미지				
판정 결과	殺	慶	淳	僵

- 疑: 『禮記集說』 등에 ‘殺其惡氣’라는 구절이 보인다. 자획이 비록 분명하지 않지만 ‘殺’의 이사자인 ‘殺’의 형태로 추정되므로, ‘殺’을 오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 婁: 『宋書』에 ‘因禍提慶, 資敗爲成’라는 구절이 보인다. 자획이 비록 마멸되었지만 ‘慶’의 형태로 추정되므로, ‘慶’을 오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宋書』에서는 ‘提慶’을 ‘致慶’(경사를 이르게 하다)으로 교감하기도 하였다.
- 淳: 자획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淳沒’의 ‘淳’을 오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 僵: 자획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路傍僵者’의 ‘僵’을 오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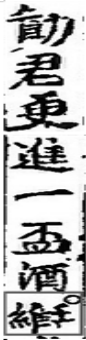

2. 유사한 자형과 혼동하여 오독한 사례

- 翹: 인명으로 쓰인 글자로, 翹의 좌변 ‘尢’을 자형이 유사한 ‘元’으로 오독하였다.
- 𪔐: 保의 우변 ‘宀’의 이체자인 ‘宀’를 자형이 유사한 ‘矛’로 오독하였다. ‘保米’는 조선시대에 軍保로부터 거두는 쌀이다.
- 稜: 인명에 해당하는 자로, ‘稜’의 좌변 ‘禾’의 초서체 ‘禾’를 자형이 유사한 ‘木’으로, 우변 ‘來’의 초서체 ‘來’를 자형이 유사한 ‘耒’로 오독하였다. ‘李稜’는 인조, 효종 때 인물이다.
- 齧: ‘齧’의 초서체인 ‘齧’의 좌변을 ‘耑’으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문맥상 ‘齧齧’의 ‘齧’이고 ‘耑’의 초서체 ‘耑’과 ‘齒’의 초서체 ‘齒’가 자형상 거의 유사하여 구별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齧’은 ‘齧’를 오독한 것이다.

- 富 : 인명에 쓰인 한자로, ‘富’의 초서체인 ‘富’의 상변을 ‘宀’으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그 뒷글자가 ‘沙里’이고 우리말에 개의 하나인 ‘삼사리’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富’은 ‘삼사리’의 ‘삼’을 표기한 ‘富’(삼)을 오독한 것이다.

역통 폰트 및 코드	翹 KC03393	仔 KC00120	秣 KC10533	齧 KC05024	富 KC00457
원전 이미지	 『雪峯遺稿』	 『日省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판정 결과	翹	保	秣	齧	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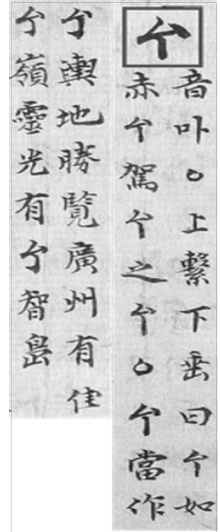
3.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오독한 사례

역통 폰트 및 코드	於 KC00659	維 KC03340	秩 KC03104
원전 이미지	 『忍齋集』	 『三灘集』	 『木川邑誌』
판정 결과	於士	王維	音秩

- 埜 : 『忍齋集』의 저자가 洪暹이고 그의 벗인 韓岬의 자가 士仰이므로, 문맥상 원문은 ‘暹於士仰, 友也’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埜’는 ‘於士’ 2자를 1자로 오독한 것이다.
- 緝 : 원문 ‘勸君更進一杯酒’가 王維의 시구로, 저자를 나타내는 ‘王維’ 2자를 1자로 오독하였다.
- 穉 : 문맥상 ‘作’의 음이 ‘秩’이라는 의미이므로, ‘音秩’ 2자를 1자로 오독하였다.

4. 기타 사례

‘수’은 유니코드 등록자로 김종훈의 『한국 고유한자 연구』, 『한국한자어사전』 등에서 이미 『行用吏文』을 근거로 ‘丁’와 더불어 국자인 ‘尗’의 이체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尗’의 자형이 ‘丁’로 되는 것은 수궁이 되지만 ‘수’로 되는 것은 다소 이상하여 『震覽, 吏文, 行用吏文』에서 자형을 재검토한 결과, ‘수’가 아니라 ‘𠄎’로 표기되어 있었다. ‘尗’의 자형이 ‘𠄎’로 된 것은 ‘尔’의 이체자에 ‘尔’가 있는 것과 같다. 원전의 자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V. 誤字의 判別

『한국한자사전』 편찬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작업 중의 하나는 원전 속에 쓰인 오자를 판별하는 일이었다. 후보자가 쓰인 문맥을 살피고 자형, 자음, 자의를 다방면으로 따졌는데, 그 결과 후보자 9,000여 자 중에서 오자를 2,000자 이상 발견하였으며, 게다가 이 중에는 수백 자의 오자가 한국의 단독 제안으로 유니코드 한자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판별 기준에 따라 약간의 출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전하는 고문헌에 의외로 많은 수의 오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오자는 저자가 애초에 글자를 잘못 썼을 수도 있고, 타인이 행서나 초서 등을 판독하여 전사하고 이것을 판각이나 활자 등으로 간행해 내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저본이나 간행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꾸로 오자의 분석을 통해 그것이 나타난 원인을 대략 살피볼 수 있을 뿐이다. 그 원인과 양상을 꼼꼼히 밝히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하겠지만 애초 행서나 초서로 작성된 원고를 전사, 전각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자형의 글자로 판독하여 잘못 쓰거나 자형을 판독하지 못하여 부득이 楷書화된 글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12) 원칙적으로 자형, 자음, 자의와 관련한 이체자의 원리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오자로 판별하였다. 그러나 이체자로 인정할 것인지 오자로 간주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대체로 보류 처리하였다.

1. 유사한 자형으로 혼동한 사례

역통 폰트 및 코드	𣎵 KC01104	𣎵 KC00922	原 KC10699	慕 KC10950	𣎵 KC00941
원전 이미지					
판정 결과	𣎵	就	愿	葉	皮

- 𣎵 : '𣎵'의 좌변 '韋'의 초서체 '韋'를 '常'의 초서체 '常'과 혼동하여 '常'으로 잘못 썼다. 뒷글자인 '常'도 같은 이유로 잘못 썼다. '統率韋'는 '고위 무관을 통솔한다'는 뜻이다.
- 就 : '就'의 좌변 '京'의 초서체 '京'을 '原'의 초서체 '原'과 혼동하여 '原'으로 잘못 썼다. '左右就養'은 '부모를 곁에서 모신다'는 뜻이다.
- 愿 : '愿'의 초서체 '愿'에서 하변의 '心' 부분을 '火'와 혼동하여 '火'로 잘못 썼다. '趙愿'은 숙종 때 인물이다.
- 慕 : '葉'의 초서체 '葉'에서 상변 '艹'를 '莫'의 초서체와 혼동하여 '莫'으로 잘못 썼다. '慕'의 초서체는 '慕'이다. '姜葉'은 현종 때 인물이다.
- 𣎵 : '皮'의 초서체 '皮'를 '出'의 한국이체자인 '出'과 혼동하여 '出'로 잘못 썼다. '擻皮皆眞'은 '껍데기를 벗겨도 안팎이 모두 참되다'는 뜻이다.
- 𣎵 : '畔'의 초서체 '畔'에서 우변의 '半' 부분을 '成'의 초서체 '成'과 혼동하여 '成'으로 잘못 쓴 것이다. '涯畔'은 '가', '끝', '경계'의 뜻이다.
- 𣎵 : '後'의 초서체 '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오독하여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善後'는 '뒷수습을 잘한다'는 뜻이다.
- 𣎵 : '德'의 초서체 '德'에서 우변의 '惠' 부분을 '想'의 초서체 '想'과 혼동하여 '想'으로 잘못 썼다. '閔德基'는 정조 때 인물이다.
- 𣎵 : '藻'의 초서체 '藻'에서 하변의 우측 '朶' 부분을 '宗'으로 오독하여 '宗'으로 잘못 썼다. '李熙藻'는 철종 때 인물이다.

○ 魯: '獸'의 이체자인 '魯'에서 우변 '魯'의 초서체를 '魯'의 초서체 '魯'와 혼동하여 '魯'로 잘못 썼다. '獸'의 초서체는 魯이다. '鳥駭獸竄'은 '새가 놀라고 짐승이 달아나다'는 뜻이다.

역통 폰트 및 코드	𪛗 KC02703	𪛘 KC00133	𪛙 KC10807	𪛚 KC11236	魯 KC01189
원전 이미지					
판정 결과	畔	後	德	藻	獸

2. 잘못된 자형으로 해서화하여 표기한 사례

역통 폰트 및 코드	希 KC10824	飾 KC00631
원전 이미지		
판정 결과	希	飾

- 希 : ‘希’의 초서체 ‘𠄎’를 전사 과정에서 판독하지 못하여 해서화한 것으로 보인다. ‘李希泌’은 정조 때 인물이다.
- 飾 : ‘飾(飾)’의 초서체 ‘𠄎’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판독하지 못하여 ‘𠄎’으로 해서화한 것으로 보인다. ‘飾’은 ‘𠄎’의 폰트 개발 과정에서 오독한 것이다. ‘掩飾’은 ‘가려서 꾸미다’는 뜻이다.

V. 字音의 추정

한국한자의 국자 가운데에는 자음 정보가 전혀 없는 한자가 상당히 많다.¹³⁾ 자전을 편찬할 때 이러한 한자들에 대해 임의의 자음을 부여하는 것은 금기시해야 할 일이지만 해당 한자를 호명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종의 기호로서라도 자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사한 한자들의 관습음을 참조하여 추정음을 부여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俦, 翫

홍기문은 이두에 사용된 한자들 가운데 중국의 한자와 다른 양상을 띤 한자를 소개하면서 자의만 있는 자로 ‘俦’(뜻: 다지/다다-), ‘逮’(뜻: 자라), ‘翫’(뜻: 배미)를 들었다.¹⁴⁾ 여기서는 ‘俦’, ‘翫’의 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俦

‘俦’는 『字典釋要』에서 최초로 ‘다짐돌 고’라고 하며 그 음을 언급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로 ‘俦音’의 뜻을 풀이할 뿐이었다. 김종훈은 ‘俦’에 대해 이두표기의 ‘俦音’(다딤)에서 형성된 국자로, ‘供辭’ 또는 ‘服罪之文’으로 ‘자백서’ 또는 ‘진술서’를 뜻하고, 여러 吏讀書에서 ‘俦音’은 ‘다딤’과 ‘다짐’으로 나타나 있으며, 음은 ‘고’라고 하였다.¹⁵⁾ 김종훈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한국한자어사전』 등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음이 왜 ‘고’인지에 대한 설명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俦’의 음은 이 자의 실체를 알아야 풀릴 듯한데, 김종훈의 언급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俦’의 음을 살펴보겠다.

첫째, ‘俦’는 애초에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音’과 함께 ‘俦音’의 형태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는 ‘俦’의

13) 『한국한자사전』 수록자 중에서 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자인데, 자음 정보가 없는 국자의 자음은 앞에서 분류한 조사 방법에 따라 음을 추정하였다.

14) 박성중, 『韓國漢字의 一考察』,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005, 64쪽(홍기문, 『이두연구』, 과학원출판사, 1957에서 재인용).

15) 김종훈, 『韓國 固有漢字 研究』, 보고서, 2014, 238쪽 참조.

뜻에서 ‘다디’ 혹은 ‘다지’를 빌리고 음에서 한글 종성 ‘ㅁ’을 빌려서 ‘다담’ 혹은 ‘다짐’으로 명사형의 음이 완성 되는 것으로 볼 때 충분히 수공이 가는 점이다. 그렇다면 ‘拷’의 음은 의차한 ‘다디’ 혹은 ‘다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拷’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한다.

① “第聞申參判, 只捧許賣之拷, 而未嘗給價, 已經年歲, 則想亦拘於水破而不用矣.”¹⁶⁾

①의 ‘捧許賣之拷’는 전형적인 ‘捧…拷音’ 형태의 변형으로, 여기의 ‘拷’는 ‘拷音’의 생략형이다. 그렇다면 ‘拷’ 단독으로도 ‘拷音’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拷’의 음은 ‘다디’, ‘다지’ 외에 ‘다담’ 혹은 ‘다짐’이 추가될 수 있겠다.

둘째, ‘拷’가 이두 표기에 쓰였다는 것이다. 이두 표기는 기존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고유어를 표기하는 것이므로 ‘拷’는 기존 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拷’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형이므로 이두 표기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拷’ 외의 다른 자가 ‘음’과 함께 쓰였다가 뒤에 ‘拷’로 변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李夢犀, 以摘奸差使員, 要媚權勢, 據捧堤堰居民拷音(拷音, 供稱也. 凡土地折受之徒, 必問其隣近居民, 皆以陳荒無主納供, 然後方成立案云), 移報監司, 啓聞折結.”¹⁷⁾

③ “疑怒轉深, 舉措妄悖, 至於本府富民孫命胄處, 以行賂言官, 指囑發論之狀, 劫捧拷音.”¹⁸⁾

④ “然三百餘年久遠之事, 以一小臣之言, 有難取信, 則臣死罪拷音成納後, 決定大事, 俾免辨玉之三獻焉.”¹⁹⁾

⑤ “上以景祐所奏之雍容假豫, 特罷其職, 復使往見金龜柱處, 又使宣傳官往見形狀, 使之以黨心自服捧拷音.”²⁰⁾

⑥ “視人命爲奇貨, 倚妹屍若孤注, 不顧有傷天和, 惟知肆奸賈禍, 乞各取認狀(如吾東之拷音).”²¹⁾

②는 ‘다짐’이 최초로 쓰인 사례로, ‘據捧堤堰居民拷音’은 ‘捧…拷音’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③과 ④에서는 ‘拷音’, ⑤와 ⑥에서는 ‘拷音’의 형태가 보인다. 또한 ‘拷音’은 『승정원일기』와 디지털 장서각의 원문 텍스트에서 각각 18건, ‘拷音’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각각 1건, 14건 발견된다. 물론 이 중에 판독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拷’ 외에도 기존 한자인 ‘拷’와 ‘拷’가 ‘음’과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6) 宋時烈, 『宋子大全』, 「與李士深」.

17) 『明宗實錄』卷33, 21년 6월 23일.

18) 『承政院日記』卷517, 肅宗 45년 8월 16일.

19) 『承政院日記』卷673, 英祖 4년 10월 27일.

20) 『英祖實錄』卷119, 48년 7월 23일.

21) 丁若鏞, 『興猶堂全書』, 「欽欽新書」, 「批詳偽抄」, 「孫知縣殺妻審語憤死圖賴」.

이는 ‘拷’가 ‘拷’, ‘考’와 통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考’와 ‘拷’는 음이 모두 ‘고’이고, ‘考’에 ‘신문하다’, ‘拷’에 ‘형벌을 가하여 공초를 강요한다’의 뜻이 있으므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拷音’이 ‘考音’, ‘拷音’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考’에 사람을 나타내는 부수 ‘人’을 추가하였거나 ‘拷’의 부수 ‘手’를 ‘人’으로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볼 때 ‘拷’는 ‘考’나 ‘拷’에서 변형된 자로 그 음은 ‘고’가 아니라 ‘다디’, ‘다지’, ‘다딤’, ‘다짐’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畹

홍기문은 ‘畹’을 한국에서 새로 만든 자라고 하였으나 『옥편』에 음은 ‘렬’이나 ‘례’, 뜻은 ‘빠지대(陷)’로 이미 수록된 자이므로 한국에서 새로 만든 자는 아니다.

① “上畹下畹, 所隔一壟. 畹者, 田區也, 方言謂之畹味.”²²⁾

② “畹, [鮮] 畹區, 배미 렬.”²³⁾

①은 뜻을 ‘배미’라고 한 최초 사례이고, ②는 음을 ‘렬’이라고 한 최초 사례이다. 이후 김종훈, 하영삼을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는 모두 ‘배미 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이 왜 ‘렬’인지에 대한 설명은 선행 연구에 보이지 않는다. ‘畹’은 ‘田’이 ‘배미’와 관련되었으므로 이 글자의 음을 알기 위한 관건은 ‘列’이다.

③ “稻人掌稼下地, 以瀦畜水, 以防止水, 以溝蕩水, 以遂均水, 以列舍水, 以澮寫水(列, 田之畦畔也).”²⁴⁾

③의 ‘以列舍水, 以澮寫水’는 ‘논두렁으로 물을 가두고 붓도랑으로 물을 쏟는다.’라는 뜻이므로, ‘列’에는 ‘논두렁’이라는 뜻이 있다. ‘배미’는 논두렁으로 구분된 구역이니 ‘논두렁’에서 충분히 ‘배미’의 뜻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畹’은 갑작스럽게 정약용의 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논두렁’의 뜻을 가진 기존 한자 ‘列’에 부수 ‘田’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음은 ‘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畝

‘畝’의 음은 『新字典』 「朝鮮俗字部」에서 ‘화’로 표기한 이래 김종훈의 『한국 고유한자 연구』 등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2자를 세로로 쓰다가 1자로 합해진 자라고 하면서도 기존 한자 ‘뒵’(畝)가 자형상 ‘畝’의 정

22)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世遺表』, 「地官修制·田制考」.

23) 池錫永, 『字典釋要』, 田部 6畫, 匯東書館, 1906.

24) 『周禮注疏』, 「地官·稻人」, 『文淵閣四庫全書』 90책, 臺灣: 商務印書館, 1990.

자로 볼 수 있고 뜻도 ‘口大(『廣韻』), ‘魚之口大者(『字彙』)로 ‘슴’과 같다는 근거를 들며 그대로 따르고 있다.²⁵⁾ 예외적으로 최동언의 『朝鮮式漢文研究』만이 음과 뜻을 모두 ‘대구’라고 하였지만,²⁶⁾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슴’의 음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가 『新字典』 이전의 우리 문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구’를 표기하기 위해 식자층이 ‘大’와 ‘口’로 조자된 회의자 ‘뭇’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水’와 ‘田’이 합해져 ‘畚’이 된 경우처럼 ‘大口’를 세로로 쓰다가 자연스럽게 자형이 합해졌을 수도 있을 터인데, 만약 전자라면 우리 문헌에 ‘슴’보다 정자인 ‘뭇’을 사용한 사례가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대만 『이체자사전』에도 보이지 않는 ‘슴’라는 이체자를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신자전』 이전의 우리 문헌에서 ‘슴’과 ‘뭇’가 ‘대구어’의 뜻으로 쓰인 사례 중에서 유의미한 것을 연도순으로 추린 것이다.

- ① 周世鵬, 『武陵雜稿』, 「彝訓錄」(1581년 초간, 1859년 중간): “於酒嗜醴, 於魚嗜吳, 於肉嗜脯, 於果嗜紅柿.”
- ②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魚部」(1613년): “吞魚, 대구. 性平味鹹無毒, 食之補氣, 腸與脂味尤佳, 生東北海, 俗名大口魚(俗方).”
- ③ 『承政院日記』 卷665, 英祖 4년 7월 7일(1728년): “惠教曰, 臣聞醫官崔恒齡之言, 有一士夫家, 乾吳魚肉裏, 亦有此物, 故其家棄之云, 尤爲怪駭矣.”
- ④ 徐命膺, 『保晚齋叢書』, 『八道提封』, 「慶尙道·土產」(1783년): “吞魚, 俗名大口魚.”
- ⑤ 李德懋, 『靑莊館全書』, 『蝨葉記』 4, 「禽獸魚大小相類」(18세기 말): “吞(俗以大口魚爲吞)則大, 而鱈(倭字 명태)則小.”
- ⑥ 『正祖實錄』 卷41, 18년 11월 17일(1794년): “御弘化門頒吞(吞, 黃大口魚. 是年貢果不至, 代以吞).”
- ⑦ 鄭東愈, 『晝永編』(1806년): “我東有兩字合爲一字者, 以水田爲畚, 有一字分爲兩字者, 吞魚稱以大口魚.”
- ⑧ 丁若鏞, 『經世遺表』, 「均役事目追議·嶺南」(1817년): “海之漁場有吞魚場(吞, 俗字也, 本名大口魚), 靑魚場(小青魚), 文魚場(章學魚).”
- ⑨ 韓致滌, 『海東釋史』, 『物產志』, 「吳魚」(19세기 초): “乾吳魚, 白色者爲上, 帶黃者次之. 自朝鮮國來者, 肉厚亦佳(和漢三才圖會). 按吳, 釋文, 胡化反, 魚之大口者名吳. 許浚曰, ‘吞魚生本國東北海中, 俗名大口魚’. 吞魚卽吳魚也.”
- ⑩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19세기 중엽): “吞(音吞, 魚名, 大口. 字彙: 魚之大口者曰吳, 音謹. 四聲通解: 漢俗東國大口魚, 曰吳口魚).”
- ⑪ 崔南善, 『新字典』, 「朝鮮俗字部」(1915년): “吞(화, 魚名, 大口 대구. 字彙: 魚之大口者曰吳, 音謹(화). 四聲通解: 漢俗東國大口魚, 曰吳口魚).”

25) 김중훈, 앞의 책, 2014, 296~297쪽 참조.

26) 최동언, 『朝鮮式漢文研究』, 사회과학출판사, 2009, 352쪽 참조.

①, ③은 기존 한자인 ‘뫼’를 ‘대구어’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쓰고 있으니, ‘대구어’를 회의자인 ‘뫼’(화)로 표기한 것이다. ②, ④, ⑤, ⑥은 ‘츄’에 대해 뜻을 ‘대구어’라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츄’가 기존 한자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뜻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⑦은 ‘츄’이 조자 방법상 1자가 2자로 나뉘는 자이고 뜻은 ‘대구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 한자에는 보이지 않는 자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한 정도로 보인다. ⑧은 ‘츄’가 속자라고 하고 본래 이름이 대구어라고 하였으니, ‘츄’가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한자라고 자형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속자가 세속에서 새로 만든 자를 말하는지 이체자를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⑨는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의 『和漢三才圖會』에서 ‘뫼魚’를 인용하면서 ‘뫼’와 ‘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經典釋文』에서 ‘뫼’에 대해 음은 ‘胡化反(화)’, 뜻은 ‘魚之大口者(입이 큰 물고기)’라고 하고,²⁷⁾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츄魚’를 세속에서 ‘大口魚’라고 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츄魚’는 ‘뫼魚’라고 하였다. 곧 ‘츄’는 ‘뫼’의 이체이므로 그 음을 ‘화’라고 한 것이다.

⑩은 ‘츄’의 음을 ‘츄’, 뜻을 ‘대구어’라고 하고, 『字彙』에서 ‘魚之大口者’를 ‘뫼’라고 하고 그 음을 ‘譌(화)’라고 하며, 16세기 초 최세진의 『四聲通解』에서 당시 중국의 세간에서 東國의 ‘大口魚’를 ‘뫼口魚’라고 하였다는 설을 덧붙여 두었다. 그러나 ‘츄’의 음을 ‘츄’라고 한 것은 매우 이상한 방식이다.²⁸⁾ 또 이전 사례처럼 중국의 운서나 자서를 들었는데, 『사성통해』의 설은 당시 중국의 세간에서 우리나라의 ‘大口魚’를 ‘뫼口魚’라고 했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大口魚’를 ‘뫼魚’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다.

⑪은 ‘츄’의 음을 ‘화’라고 표기하고 ⑩의 근거를 인용하였다.

이상으로 『신자전』 이전의 우리 문헌에서 ‘츄’와 ‘뫼’가 ‘대구어’의 뜻으로 쓰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①, ③과 같이 ‘대구어’를 자연스럽게 회의자인 ‘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고, 새로운 자형인 ‘츄’에 대해 우리나라 민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나 자서나 운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고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의 주체가 한문에 친숙한 식자층이다 보니 ‘츄’의 근원을 기존 한자에서만 찾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은 국내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인데, ‘츄’를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뫼’를 사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였다. 예를 들어 한국고전종합DB,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디지털 장서각,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의 원문 텍스트에서 ‘츄’가 단독으로 쓰인 사례와 ‘츄魚’의 사례는 각각 2건, 31건에 이르는 반면 ‘뫼’가 단독으로 쓰인 사례와 ‘뫼魚’의 사례는 1건과 2건에 불과하였다. 식자층의 언급과는 달리 우리 문헌에는 ‘뫼’가 아니라 ‘츄’를 사용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 ‘大口魚’가 권근의 문집에서 대략 최초로 나타난 이후²⁹⁾ 『世宗實錄』 등에서 ‘乾大口魚’, ‘半乾大口魚’,

27) 이와 동일한 내용이 더 이른 시기에 지어진 쥘 郭璞의 『方言』에 대한 주에도 보이는 바, “吳, 大也(從口下大, 故魚之大口者, 名뫼, 胡化反)”이라고 하였다.

28) 최동연(앞의 책, 2009, 352쪽)은 이에 대해 ‘츄’가 ‘大口’의 오류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29) 權近, 『陽村集』, 『謝慶尙道觀察使鉄城君李公卵醢新大口魚之惠』.

‘黃大口魚’, ‘生大口魚’, ‘大口魚卵’, ‘白大口魚’ 등의 형태로 1,000건도 넘게 나타나고 있다. 또 『四庫全書』에서는 ‘大口魚’가 쓰인 횃수가 명대와 청대에서 총 5건이 나오는데, 이들 중 최소한 3건은 아래의 사례와 같이 조선의 공물과 관련된 것이었다.

⑫ “二十一年聖祖仁皇帝恭謁祖陵，朝鮮國王遣陪臣至盛京迎接。進貢方物，豹皮·鹿皮·水獺皮·青黍皮·倭劍·全鰻·八帶魚·大口魚…….”³⁰⁾

조선에서 중국에 보내는 공물 목록에도 ‘畚魚’나 ‘吳魚’라고 하지 않고 ‘大口魚’라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사대를 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음과 뜻이 같은 중국의 기존 한자가 있다면 이 자를 써서 ‘吳’나 ‘吳魚’, ‘吳口魚’라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데 그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어의 표기에 일부 식자층이 ‘吳’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水’와 ‘田’이 합해져 ‘畚’이 된 경우처럼 ‘大口’를 세로로 쓰다가 자연스럽게 합해진 ‘畚’를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大口’를 세로로 쓰다가 자연스럽게 합해진 ‘畚’의 음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먼저 2자가 합쳐져 1자가 된 ‘畚’, ‘太’ 등을 참고할 수 있겠다. ‘畚’은 뜻이 ‘논’인 ‘水田’을 세로로 쓰다가 합쳐져 ‘畚’이라는 새로운 자형이 되고 음을 여전히 ‘수전’이라고 하다가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한자음처럼 1자의 음을 부여하여 자형이 유사한 ‘畚’의 음을 따라 ‘답’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太’는 뜻이 ‘콩’인 ‘大豆’를 세로로 쓰다가 ‘豆’를 ‘丩’의 형태로 흘려 쓰면서 자형이 합쳐져 기존 한자 ‘太’가 되고 음을 여전히 ‘대두’라고 하다가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반적인 한자음처럼 단음절로 바뀌며 자형이 같은 ‘太’의 음을 따라 ‘태’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³¹⁾

그러나 ‘畚’는 ‘畚’, ‘太’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畚’는 자형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음과 뜻이 모두 ‘대구’이다. 따라서 음을 그냥 ‘대구’라고 하면 되지, 세로로 쓰다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글자를 굳이 ‘吳’의 이체자로 보아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화’라는 음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畚’가 만약 정말로 단음절화되어 ‘화’라는 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건대구(乾大口)’, ‘황대구(黃大口)’, ‘생대구(生大口)’는 있어도 대구가 ‘화’로 쓰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畚’의 음이 ‘畚’과 ‘太’와는 달리 단음절화되지 않고 ‘대구’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3. ‘意’를 聲部로 하는 形聲字로서 人名에 단독으로 쓰인 한자의 자음

『한국한자자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된 약 1,500자의 인명용 형성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외자(단독)로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의 음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관심을 가지

30) 『清會典則例』, 「禮部主客清吏司·朝貢 上」.

31) 이와 관련해서는 남풍현, 「韓國의 固有漢字」,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1989 참조.

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들이 형성자이기 때문에 성부의 음을 음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성부의 글자가 단수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복수음을 가진 경우는 복수음 중에서 어느 음으로 정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외자 이름으로 쓰이고 그 자의 성부가 복수음을 가진 형성자로 대표적인 것이 성부에 ‘憲’가 들어간 형성자인데, 『한국한자사전』에는 ‘堦’, ‘堦’, ‘穉’, ‘穉’의 네 글자가 나온다.³²⁾ 이 네 글자는 항렬자의 영향 등으로 부수 ‘土’, ‘王’, ‘禾’, ‘耑’를 ‘憲’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³³⁾ 만약 이들 추가된 부수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이들 4자의 음을 정하는 것은 어쩌면 이름에 단독으로 쓰인 ‘憲’의 음을 정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다.

먼저 ‘憲’의 음과 뜻이 쓰인 양상을 살펴본다. 단국대학교 출간 『漢韓大辭典』에는 ‘憲’의 음이 ‘의’, ‘억’, ‘희’의 세 가지가 있고 각 음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음이 ‘의’인 경우: ① 의지. 희망. 지향. ② 생각. 견해. ③ 흥금. 속마음. ④ 정의(情意). 감정. ⑤ 정취. 흥미. ⑥ 의기. 기세. ⑦ 생각하다. 마음속에 두다. ⑧ 헤아리다. 예측하다. 예상하다. ⑨ 의심하다. ⑩ 아름답다. 懿와 통용. ⑪ 과실의 씨. 蕙와 통용. ⑫ 육근(六根)의 하나. ⑬ 성(姓).
- 음이 ‘억’인 경우: ① 기억하다. 뒤에 憶으로 썼다. ② 億과 통용. ③ 혹은. 아마. 어쩌면. 抑과 통용.
- 음이 ‘희’인 경우: ① 감탄사. 아! 噫와 같다.

음이 ‘의’인 경우의 뜻은 대체로 ‘뜻(의지)’, ‘생각’, ‘마음’이 근간이 되는 뜻으로 보이고 그것의 동사형인 ‘생각하다’가 있으며, 그 외에 ‘아름답다’와 ‘과실의 씨’라는 뜻으로 각각 ‘懿’, ‘蕙’와 통용되고 있다. 음이 ‘억’인 경우의 뜻은 대체로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後起字 ‘憶’이 있고, 숫자 ‘억’의 뜻으로 ‘億’과 통용되고 있으며, 음이 ‘희’인 경우의 뜻은 감탄사로 ‘噫’와 통용되고 있다. ‘堦’, ‘堦’, ‘穉’, ‘穉’ 네 글자가 쓰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堦: ① 『承政院日記』 卷1776, 正祖 21年 5月 12日: “鄭陽錫·黃堦·趙行彥.”
② 『甲午斥邪錄』, 「儒生等呈巡營門及慰撫使文」: “進士洪堦, 朴周大.”
- 堦: 『承政院日記』 卷1958, 純祖 8年 11月 30日: “李賢模·黃堦·洪秉行.”
- 穉: 『承政院日記』 卷2927, 高宗 21年 8月 23日: “申洛均·南宮穉·趙昌教.”
- 穉: 權訪, 『鶴林集』, 「答穉姪」;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諱二男, 長(耑+彥), 次穉.”

32) 『한국한자사전』에서는 이 네 글자의 음을 ‘憲’가 들어간 인명용 형성자에 ‘億’과 ‘憶’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여 모두 ‘억’이라고 하였다.

33) 이와 관련해서는 신상현, 「韓國 固有漢字 조사 연구: 人名用 固有漢字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참조.

이 중에서 ‘彥’의 경우 ①, ② 모두 權諱의 차남에 해당하는데, ②에서 형인 {衤+彥}의 ‘彥’이 ‘아름답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혹 음을 ‘의’로 볼 수도 있겠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이들의 음은 만약 성인이 되었을 때 뒷사람이 지어준 字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지어 음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吉常宏 등은 『古人名字解詁』에서 한나라 사람 宋意의 字가 ‘伯志’인 것에 대해 『孟子』 「萬章上」 “以意逆志, 是謂得之”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네 자는 외자로 쓰인 인명용 형성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3개의 음 중에서 어느 것으로 정할지 알 수가 없다.

음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 인물관계정보’와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에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기존 인명에서 ‘意’가 다른 이름자와 함께 쓰이거나 외자로 쓰였을 때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意’가 외자로 쓰인 사례는 한국학자료센터에서 ‘趙意’ 1건이 있었으나 字와 같이 음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었다. ‘意’가 다른 이름자와 같이 쓰인 사례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意海’, ‘意謙’, ‘李達意’, ‘李適意’ 4건이 있었다. ‘意海’(뜻이 진실하다), ‘意謙’(뜻이 진실하다), ‘達意’(뜻을 전달한다)와 ‘適意’(뜻이나 마음에 맞음. 또는 그렇게 함)의 ‘意’는 ‘뜻’, ‘의지’, ‘생각’, ‘마음’의 뜻이 있는 ‘의’에 해당하므로, 음을 ‘의’라고 해야 한다. 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나온 사례를 제외하면 ‘李述意’, ‘李碩意’, ‘李慎意’가 있었는데, ‘述意’(뜻을 서술하다), ‘碩意’(뜻을 크게 하다), ‘慎意’(뜻을 신중히 하다)의 ‘意’도 음을 ‘의’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이름자와 함께 쓰인 사례들을 보면 ‘意’는 주로 ‘뜻’, ‘의지’의 의미로 쓰이고, 字를 이름과 관련지어 짓는 것처럼 이름자의 두 자가 의미상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意’(의)와 통용되는 ‘懿’와 ‘憲’이 쓰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憲’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懿’는 외자로 쓰인 사례와 다른 이름자와 함께 쓰인 사례가 한국고전종합DB에서 18건, 한국학자료센터에서 13건이 나왔는데, 이들은 대체로 ‘懿胤’, ‘懿孫’과 같이 ‘아름답다’, ‘훌륭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憲’이 이름자 사례에서 주로 ‘뜻’, ‘의지’의 의미로 쓰이고 ‘懿’는 ‘意’와 자형이 아니라 음이 같아 통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憲’는 일반적인 경우 이름자에서 ‘아름답다’, ‘훌륭하다’의 ‘懿’로 쓰일 것 같지 않다.

다음으로 ‘憲’(억)과 통용되는 ‘億’, ‘憲’(억)의 후기자인 ‘億’, ‘憲’(희)와 통용되는 ‘億’이 쓰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億’이 외자 혹은 다른 이름자와 함께 쓰인 사례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117건, 한국학자료센터에서 138건 나왔는데, 이들의 ‘億’은 주로 ‘億年’, ‘億齡’, ‘萬億’, ‘壽億’, ‘億孫’ 등과 같이 ‘숫자 1억’, ‘한없이 많다’의 뜻으로 쓰였다. ‘億’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2건, 한국학자료센터에서 5건 나왔는데, 이들의 ‘億’은 주로 ‘煥億’, ‘鎮億’과 같이 ‘기억’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憲’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意’는 인명에서 외자로 쓰인 사례가 1건 있었는데 음을 무엇으로 정할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이름자와 함께 쓰인 사례가 소수 있었는데 주로 ‘뜻’, ‘의지’의 의미로 쓰여 음이 ‘의’였으며, ‘憲’와 통용되는 자이거나 후기자 중에는 음이 ‘억’인 ‘億’, ‘億’이 인명에 쓰인 사례가 다수 나왔다. 따라서 사례로만 보면 ‘億’, ‘億’, ‘億’, ‘億’의 음은 ‘億’, ‘億’과 같이 ‘억’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으나, 다만 ‘憲’가 외자로 쓰인 사례 가운데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뜻’, ‘의지’의 의미로 쓰인 사례만 나오고 ‘億’, ‘億’의 의미로 쓰인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니, 여전히 음이 ‘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음을 보수적으로 처리하여 ‘意’를 대표하는 음인 ‘의’로 정하는 것이 더 온당해 보인다.

Ⅵ. 나가는 말

한국한자의 존재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은 국학은 물론 동아시아 인문고전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지식영·최남선 이후 한국한자에 대한 전문적인 논고가 출현하기 까지 70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있었으며, 이후의 연구들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그나마 단국대학교에서 『한국한자어사전』을 펴내고 지식정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량의 한자를 수집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전자는 수량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후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까지 뒤섞어 玉石同架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한자사전』은 이 두 가지 선행 업적이 가진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동아시아 인문고전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한자사전』은 전통적인 자전의 편찬 방식과 학술 저술의 연구 방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유형의 고문헌에 산재하는 한국한자를 망라한 자전으로, 한자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학 연구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어문 생활을 보다 정치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예상된다. 『한국한자사전』의 출간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姜栢年, 『雪峯遺稿』, 『한국문집총간』 103, 민족문화추진회, 1988.
- 權近, 『陽村集』, 『한국문집총간』 7, 민족문화추진회, 1988.
- 權訪, 『鶴林集』, 『한국문집총간』 속 97, 민족문화추진회, 2010.
- 『內閣日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甲午斥邪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1893~1894.
- 『木川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1779.
- 房斗天, 『龍城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徐命膺, 『保晚齋叢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1935.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116, 민족문화추진회, 1988.
- 『雲峯縣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0160-13).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7-259, 민족문화추진회, 2000.
- 李承召, 『三灘集』,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 鄭東愈, 『晝永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가람古041-J463h-v.1-2).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286, 민족문화추진회, 2002.
- 趙綱, 『龍洲遺稿』, 『한국문집총간』 90, 민족문화추진회, 1988.
- 周世鵬, 『武陵雜稿』, 『한국문집총간』 26-27, 민족문화추진회, 1988.
- 『震覽』,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崔世珍, 『四聲通解』,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1614.
- 崔左海, 『五書古今註疏講義合纂』,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韓致瀛, 『海東釋史』, 조선광문회, 1913.
- 許浚, 『東醫寶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1613.
- 洪暹, 『忍齋集』, 『한국문집총간』 32, 민족문화추진회, 1988.
- 楊慎, 『丹鉛錄』, 北京: 人民出版社, 2019.
- 『周禮注疏』, 「地官·稻人」, 『文淵閣四庫全書』 90책, 臺灣: 商務印書館, 1990.
- 『清會典則例』, 『文淵閣四庫全書』 620-625책,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1986.
-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東京: 平凡社, 1985~199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漢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韓國漢字字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23.

池錫永, 『字典釋要』, 匯東書館, 1906.

崔南善, 『新字典』, 朝鮮廣文會, 1915.

冷玉龍·韋一心 등, 『中華字海』, 北京: 中華書局 中國友誼出版公司, 1994.

『異體字字典』編委會, 『臺灣 教育部 異體字字典』, 臺北: 國語推行委員會, 2002.

김종훈, 『韓國 固有漢字 研究』, 보고사, 2014.

리득춘, 『한조어언문자관계사』, 吉林: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2.

최동언, 『朝鮮式漢文研究』, 사회과학출판사, 2009.

吉常宏·吉發涵, 『古人名字解詁』, 北京: 語文出版社, 2003.

董蓮池, 『新金文編』, 北京: 作家出版社, 2011.

王寧, 『漢字學概要』,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王鋒, 『从漢字到漢字系文字: 漢字文化圈文字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3.

鮎貝房之進, 『雜攷·俗字攷』, 東京: 國書刊行會, 1931.

김종훈, 「韓國 固有漢字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남풍현, 「韓國의 固有漢字」,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1989.

림성호, 「조선국자와 일본국자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143, 吉林: 吉林省民族事務委員會, 2006.

武鵬宇, 「한국 국자(國字)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박성중, 「韓國漢字의 一考察」,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005.

신상현, 「韓國 固有漢字 조사 연구: 人名用 固有漢字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이건식, 「『통합 한한대사전』의 國字 처리에 대하여」, 『동양학』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이건식, 「韓國 固有漢字의 發達: 地名의 後부 요소 表記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2009.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字形 構成 方法 연구 二題: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동양학』 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李柄熙, 「한국속자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연구』, 효성여자대학교, 1959.

이충구, 「韓國漢字研究 序說」, 『새교육』 12, 1982.

조성덕, 「한국 문집 소재 이체자 연구: 고려말에서 조선후기까지의 문집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하여삼, 「韓國 固有漢字의 比較的 研究」, 『중국어문학』 33, 영남중국어학회, 1999.

히철, 「학술용어 관점에서 ‘한국고유한자’ 명칭과 분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자계문자’를 제안하며」, 『東洋學』 75, 2019.

홍기문, 『리두연구』,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출판사, 1957; 『리두연구』, 한국문화사, 1995.

周有光, 「汉字型文字的综合观察」, 『中国社会科学』 2, 1988.

吉池孝一, 「非漢文系の漢字関連文字」, 『KOTONOHA』 51, 古代文字資料館発行, 200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https://koreanhistory.or.kr/newchar/>)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이체자정보(<https://db.itkc.or.kr/dch/>)

한국고전종합DB 인물관계정보(<https://db.itkc.or.kr/people/>)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https://kostma.aks.ac.kr/FamilyTree/>)

『四庫全書』(<https://www.guoxuemi.com/search/so.php>)

書法字典(<http://www.shufazidian.com/>)

臺灣 教育部 異體字字典(<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home.do>)

* 이 논문은 2024년 2월 28일에 투고되어,
2024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심사하고,
2024년 4월 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ypes of Chinese Characters Covered in *Hangukhanjajeon*(韓國漢字字典) and Main Points Considered in Its Compilation Process

Jung, Taeyun* · Kim, Woojeong**

This paper is to enunciate the definitions and the main types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applied in *Hangukhanjajeon*(韓國漢字字典) and to introduce the mainly considered points faced in its compilation process, from the cases of various misreadings and misprints verified in the process examining Chinese characters for covering to the matters of estimating the Korean pronunciations different from those previously known.

Firstly, this study discloses the reason for choosing the term 'Korean Chinese characters(韓國漢字)' instead of 'indigenous Chinese characters(固有漢字)' or 'Korean-original Chinese characters(國字)' which have various interpretations, or 'characters in Chinese character category(漢字系文字)'. Next, the 3,724 characters covered in *Hangukhanjajeon* are introduced type by type. Among them, the characters with all Korean indigenous forms, pronunciations, and meanings are the most in numbers of 2,010; the Korean variant characters(韓國異體字) 1,433; the characters with Korean indigenous meanings 258; and the characters with Korean indigenous pronunciations 42. In the cases of misreading, beside the cases caused by the unclear character form in text, there are the cases mistaking similar-form character, the cases misreading two Chinese characters as one, and so on. In the cases of misprint, many cases are derived from the process miscopying from cursive script(草書) text. Finally, the pronunciations of '傜' and '翟' known as having merely characters' meanings without pronunciations, of '슴'(대구: big mouth) incorrectly known as '吳'(화), and of the phono-semantic compound characters(形聲字) with '意' as the phonetic radical(聲部) which are used only in personal names are estimated.

Precise understanding and organizing the Korean Chinese characters' aspects is certainly necessary task to research Korean Studies, as well as East Asian classic humanities. At this point, *Hangukhanjajeon* can not only be usefully applied for Korean Studies experiencing difficulty

* Lexicographer, Central Institute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ino-Korean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from the lack of systematic and synthetic in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but also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unique Korean linguistic culture stereoscopically.

[Keywords] Chinese character, Korean Chinese character,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character form, character meaning, character pronunciation